

코로나19 관련 주요 해외 동향(11월 3주차)

1. 해외 동향

국가	주요 동향
미국	<p>농식품 수출 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식약청(FDA)에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위한 FDA 전략에 발맞춰 제3자 식품안전검사(제3자 식품안전인증) 관련하여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사업체들을 모집 중 * 자료원 : 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
	<p>유통·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소비자들은 파스타와 쌀과 같은 상온에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품들의 사재기를 하고 있으며 집에서 요리할 수 있는 제빵 재료 등이 COVID-19 장기화로 여전히 식료품 판매를 주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식품 소매 업체들은 상온 보관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음 (Supermarket News 11/16/20) ○ 아마존은 4,000개 이상의 미국 도시로의 신규 비접촉 배송 서비스인 차고내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였음(Supermarket News 11/16/20) ○ LA카운티 식당·주점 등 실내 영업 금지 조치 장기화 및 보건당국 방역수칙 위반 대대적 단속, 한식당 영업 애로 지속 ○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Build Back Better" 대통령 전환 웹 사이트(https://buildbackbetter.com)에 COVID-19 및 미국 근로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 회복 계획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제와 대통령 우선순위를 발표함(Supermarket News 11/10/20)
	<p>바이어·수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사)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김치류의 신규 수입을 위해 한국산 김치류 샘플 선적 완료 및 김치 품목의 유통 기간 모니터링 예정 ○ (S사) 당뇨 환자도 먹을 수 있는 밀로 만든 건강 라면 선적 준비 중. 코로나 장기화로 라면류 판매가 대폭 증가함 ○ (Y2S) 한국산 마늘이 10월말에 통관되어 11월부터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음. 한국산 마늘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으나 저장 기간 개선을 통한 품질 향상을 통해 수입된 한국산 마늘의 품질이 좋음. Apna Bazaar 인도계 매장 6곳에도 신규 입점함 ○ (K사) 한국산 냉동 잡채를 캐나다 코스트코 중서부 매장에 입점시켰음.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캐나다 동부 매장으로도 납품 협의중임 ○ 식품 수입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LA) 12.4일 개최 예정이었던 ‘무역의 날’ 행사 개최여부 및 방식(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검토중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5 기준) 뉴욕주 누적 확진자수 56.5만명 / 사망자 33,508명, 뉴욕시 누적 확진자 28.7만명 / 사망자 24,124명 ○ (11.13 기준) 캘리포니아주 누적 확진자수 1백만명 돌파 / 사망자 18,141명, LA카운티 누적 확진자 330,528명 / 사망자 2,486명 ○ 캐나다 온주 코로나 2차 확산사태에 따른 확진 케이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초부터는 하루 2천여건에 달할것이라는 경고가 나옴(11.12 캐나다중앙일보) ○ 캐나다 요크, 헐튼, 해밀턴 지역에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되며 식당, 술집, 체육관 등 실내 허용 인원 10명으로 제한 및 극장, 카지노 등의 영업은 전면금지(11.16, 캐나다한국일보) 		
미국	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상황 수출 호조세인 K푸드 관련 분석기사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마케팅 활동의 강화가 가정 내 소비로 이어지면서 김치, 즉석면 등의 수출 호조를 가져왔다고 분석 - 김치는 면역력, 즉석면은 연초 영화 기생충을 마케팅키워드로 활용 ※ 출처 : 카나가와신문, 11.12(목) 		
	유통·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점 10월 매출, 대형 3사 모두 전년동월 대비 6% 이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븐일레븐 : △6.0%, 패밀리마트 : △6.1%, 로손 : △6.9% - 10월 실시된 담배가격 인상 영향이 일부 있으나, 작년 10월 실적이 태풍으로 인한 사재기 현상으로 너무 높아 기저효과 발생 		
	바이어·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리아/동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3~4월과 다르게 재봉쇄 등 각국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따른 내륙 운송 차질은 크게 없음 - 소매점은 정상 운영 중이나, 레스토랑 영업 차질(포장, 배달만 허용) 및 가정 취식 증가로 한국 식자재 유통 차질 ○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정상 운영 불구, 오프라인 시식관측 일체 중단 - 재봉쇄 이후 유통매장 담당자 격일/재택근무로 원활한 업무 진행 차질 		
EU	기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input type="checkbox"/> 주요국 동향 및 조치사항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프랑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6 기준 누적 확진자 2백만 명, 사망 4.5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국가 내 누적 확진자 최다 - 10.30부터 시행 중(~12.1)인 봉쇄 이후 지난주 말부터 확산세 소폭 완화, 20%를 상회하던 검사 양성률은 16.4%로 하락 - 크리스마스 연휴로 소비가 집중되는 연말 영업활동 지장으로 상권에선 필수재 범위 확대, 블랙프라이데이(11.27)를 기점으로 비필수 상업시설 영업재개 등 정부에 요구 중 </td> </tr> </table>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6 기준 누적 확진자 2백만 명, 사망 4.5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국가 내 누적 확진자 최다 - 10.30부터 시행 중(~12.1)인 봉쇄 이후 지난주 말부터 확산세 소폭 완화, 20%를 상회하던 검사 양성률은 16.4%로 하락 - 크리스마스 연휴로 소비가 집중되는 연말 영업활동 지장으로 상권에선 필수재 범위 확대, 블랙프라이데이(11.27)를 기점으로 비필수 상업시설 영업재개 등 정부에 요구 중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6 기준 누적 확진자 2백만 명, 사망 4.5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국가 내 누적 확진자 최다 - 10.30부터 시행 중(~12.1)인 봉쇄 이후 지난주 말부터 확산세 소폭 완화, 20%를 상회하던 검사 양성률은 16.4%로 하락 - 크리스마스 연휴로 소비가 집중되는 연말 영업활동 지장으로 상권에선 필수재 범위 확대, 블랙프라이데이(11.27)를 기점으로 비필수 상업시설 영업재개 등 정부에 요구 중 		

기타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리아) 봉쇄조치 재시행(11.17~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초부터 시행되던 부분 봉쇄조치* 확대 * 출퇴근, 병원진료, 산책 등 제한적 경우에 한해 외출 가능 * 야간통금(20~6시), 식당, 박물관, 스포츠센터 등 폐쇄 - 학교, 비필수 상업시설 폐쇄 - 슬로바키아와 동일하게 전 국민 대상 대규모 검사 고려 중 ○ (스웨덴) 11.24부터 8인 이상 모임 금지(팬데믹 이후 첫 조치)
------	--

2. 통관 · 검역 이슈

국가	이슈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텐진해관의 수입업무 중단 조치에 따라, 11.4일 영상검역 실시한 물량이 통관 보류되어 대기중에 있음 ○ 코로나19 대응 위생관리체계 보완에 대한 중국 측의 요구로 검역본부에서 선별장(15개소)에 대한 영상자료 촬영중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지역)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업무 도입으로 항만청 통관 업무 관리 인원(하역 및 인스펙션 요원 등)이 평상시보다 30% 축소되어 배가 항만에 도착해도 2주 정도 통관 지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업무 지연으로 한국산 농식품 수입업체들의 추수감사절 수요 품목 공급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재고 확보에 노력중 ○ (서부지역)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통관/검역 이슈는 없으나 최근 전체적인 물량 증가로 인한 통관 병목현상 발생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항구 통관은 큰 지연 없이 정상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한국발 운임 인상, 선편 스케줄 예약 애로로 수출업체의 수출시기 일부 지연